

한국의 식당에서 '물은 셀프입니다'라는 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. '셀프'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'손님이 스스로 한다'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단어가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'셀카,' '셀프 주유소'라는 말이 새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한국식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를 '콩글리시'라고 부릅니다. 콩글리시는 대개 외국어 단어가 한국에 들어올 때 발음이나 뜻이 약간씩 바뀌면서 생깁니다.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콩글리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?

- 셀프
- 스킨십
- 오토바이
- 아이쇼핑
- 컨닝
- 오픈카
- 핸드폰
- 헬스장
- 아르바이트